

본격적인 여름철 고수온, 적조 대응 상황 살펴

- 송명달 해수부 차관, 전남 여수 가두리 양식장 고수온·적조 대응 현장점검 -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은 8월 8일(목) 전남 여수시 소재 조피볼락을 기르는 해상가두리 양식장을 찾아 어업인과 지자체 관계자들을 격려하며 고수온과 적조 대응 상황을 면밀히 살폈다.

여수 해역 일대는 현재 고수온 경보(7.31)와 적조 예비특보(8.2)가 발표된 상황이다.

송 차관은 전남도와 여수시의 고수온·적조 발생 동향과 대응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액화산소 공급기, 산소발생기 등 대응 장비 가동 현황을 직접 점검하였다.

현장을 점검하면서 송 차관은 “고수온 현상이 지속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적조가 전남 해역을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는 만큼, 사료 급이량 조절, 대응 장비 가동 등 총력 대응이 필요한 시기이다.”라고 강조하며, “해양수산부도 지자체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필요시, 어린 물고기의 긴급 방류 등을 지원하여 고수온과 적조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어촌양식정책관 어촌양식정책과	책임자	과 장	박승준 (044-200-5610)
		담당자	사무관	심수빈 (044-200-5392)
				유병동 (044-200-5616)
				조효종 (044-200-5622)